

韓半島 中部地域 부뚜막시설 住居址 일고찰

: 하남 미사리유적을 중심으로

金 載 昊*

〈목 차〉

- I. 머리말
- II. 부뚜막의 구조 및 성격
- III. 유적의 검토
- IV. 연대문제 및 유구의 성격
- V. 맺음말

국문요약

주거지 내부에서 조사되고 있는 부뚜막시설은 이전의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노지시설과는 그 구조 및 활용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구조물로 다양한 문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반도 중부지역 부뚜막시설 주거지는 발굴자료의 증가와 함께 구조적·지역적 특징과 함께 전개양상, 출토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구조적인 차이, 그리고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인 선후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조사된 부뚜막시설 주거지를 평면형태의 차이를 통하여 6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주거지가 유적 내에서 분포하는 양상과 출토유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시간적 변화 외에 공간적·문화적 차이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구조의 차이가 시간적인 변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간의 점유공간의 차이와 계층간의 차이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주거지의 변화가 보여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부뚜막시설, 미사리유적, 중토식토기, 주거지

* 한울문화재단연구원

I. 머리말

한반도에는 철기문화¹⁾ 유입에 따라 주거문화를 비롯하여 생활상 전반에 걸친 변화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도구 소재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철기의 등장과 보급, 그리고 발달에 따라 주거건축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주거 내부 구조 및 시설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보이던 노지²⁾ 등의 시설은 가마의 원리를 차용한 부뚜막시설로 변화한다.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라 화목의 선택과 사용도 자유로워지게 되며³⁾, 주거의 가구 역시 수혈주거에서 반수혈주거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생산 활동에서도 석기와 목기를 사용하던 이전 단계와는 차별화된 철제 농공구의 사용을 통해 잉여생산물과 인구의 증가로 계층간의 차이도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인류가 불⁴⁾을 사용한 최초의 흔적은 구석기 시대부터 찾을 수 있으며, 오늘 날에 이르는 수십 여 만년의 시간에 걸쳐 불의 사용 기술이나 시설은 지속적으로 변화·발달해 왔다. 곧 불의 발달은 인류문화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이러한 노력으로 불을 난방 뿐 아니라 취사·조명, 그리고 도구의 생산과 전쟁, 통신 등의 용도로도 이용하여 왔다. 청동기를 제작하는 온도와 철기를 제작하는 온도의 차이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⁵⁾ 특히 취사는 인류의 衣·食·住 가운데 식생활뿐만 아니라 설비시설 측면

1) 철기문화의 개념은 이전에 초기철기시대와 무문토기시대 후기, 세형동검기, 삼한시대를 모두 포괄하는 시대구분이다. 철기문화의 시간적 범위는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 경부터 삼국이 성립하는 시기로 한정한다.

2) 노지시설로는 위석식 노지, 무시설식 노지 등이 있다. 이러한 노지시설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상은 보이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난방 및 취사시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래 철기시대에 들어서면 새로운 형태의 노지가 등장한다. 바닥에 점토피를 두르고 그 안에 불을 피우는 점토피식과 점토피 내에 강자갈을 깔고 그 위에 점토를 얇게 덮는 부석식, 판석형 받침돌을 ‘C’자형으로 세우고 그 위에 판석형 뚜껑돌을 덮는 아궁이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터널형 노지라고 하는 부뚜막시설이 온돌시설의 초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노지는 화목이 연소할 때 연기가 주거 내부에 퍼지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화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부뚜막 구조는 주거 외부로 연결되는 배연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노지시설을 사용할 때 보다 화목의 선택이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있다.

4) 본고에서 사용하는 불은 연료의 의미를 갖는다.

5) 청동은 구리와 주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리의 용융점은 1,083℃이며 주석의 용융점은 232℃이다. 구리에 주석을 13% 섞으면 용융점은 830℃가 된다. 그러나 순수한 철의 용융점은 1,53

에서 주거문화와 접목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취사·난방시설로는 爐址가 사용되어 왔으나 철기시대 이후로 주거지 내부 및 외부에 부뚜막⁶⁶⁾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부뚜막’이란 일반적으로 밥을 지을 솥을 걸 수 있도록 아궁이 뒤에 흙과 돌을 쌓아 만든 턱 또는 단을 말하는데 부엌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굴조사된 주거유적 가운데 주거지⁶⁷⁾ 내부에 부뚜막 시설로 추정되는 소토유구는 많이 보고되었지만 부뚜막이란 개념 자체가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⁶⁸⁾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도 주로 爐址 시설이나 온돌과 관련하여 爐址와 부뚜막의 관계 또는 부뚜막을 온돌시설의 시원적 형태로 파악하여 왔다.⁶⁹⁾ 한편 부뚜막의 구조적 특징이나 지역적 특성, 전개양상, 출자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이흥중은 부뚜막부 주거지를 원형계(외래계)와 방형계(재지계)로 분류하였다. 부뚜막 시설은 원형 주거지와 함께 중부지역에 등장하며 이후 재지계의 방형 주거지에 채용된 것으로 설명하고 외래계 원형주거지가 동남부지역으로 과급된 이후 서일본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⁰⁾ 그러나 중부지역 위석식 노지와 부뚜막 시설이 공반하는 수혈주거지는 모두 방형 계통이다. 따라서 등장 시기의 과도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재론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衫井 建은 부뚜막시설의 솥걸이 형태와 주거지내 출토 시루를 집중 분석하여 한반도 남부지역 부뚜막 시설과 서일본지역 부뚜막시설의 유사성을 제

9℃이고 탄소량이 4.3%가 포함되면 1,146℃가 된다. 이러한 사실은 청동기를 제작하는 것보다 철을 생산하고, 제련하는 데에는 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가마의 발달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마의 발달은 주거 내부에 부뚜막의 설치와 환원염 토기의 생산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66) 한자로는 조(籠)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민간 신앙에서는 주술적인 측면에서 조왕신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용하는 부뚜막이란 용어는 정확한 부뚜막 구조가 확인된 하남 미사리 고려대학교 발굴조사단이 처음 사용하여 현재에는 별다른 이론 없이 통용되고 있어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67)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거지는 (半)竪穴住居址에 한정한다.

68) 국내에서는 하남 미사리에서 처음으로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부뚜막시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69) 특히 온돌의 기원에 대해서는 압록강 중류 유역으로 하고자 하는 정찬영씨의 견해가 제시된 이래 대부분 이에 따르고 있으나, 변화 형태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뚜막에서 ‘-’자형 구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ㄱ’자형 온돌 구조로 변천하였다고 보는 장경호씨의 견해도 있다. 따라서 종래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보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온돌의 개시는 바로 부뚜막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된 귀결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정찬영, 1966,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66-4; 張慶浩, 1985, 『우리나라 媿房施設인 溫突 形成에 對한 研究』, 『考古美術』 165, 韓國美術史學會.

70) 李弘鍾, 1993, 1985, 『부뚜막施設의 登場과 地域相』, 『嶺南考古學』 12, 嶺南考古學會.

시 하였다. 또한 I자형의 온돌상유구는 중국 동부지역, 중·서부지역의 솔걸이가 하나이거나 두 개인 유형은 중국 중원지역에 그 원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¹¹¹⁾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반도 내에서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는 부뚜막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관련된 제반 자료 또한 미흡한 실정이어서 부뚜막시설 주거지 고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출토 부뚜막시설 주거지의 등장이 타날문토기¹¹²⁾의 출현 및 철기문화의 수용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상의 변화가 관찰되므로, 연구의 대상 시대를 주거지 내 부뚜막시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철기문화 등장 이후를 중심으로 하겠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중부지역, 특히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적과 그 외 인근의 유적을 참고로 하여, 각 유적별 부뚜막시설 주거지를 검토하고, 공반 출토되는 유물을 통하여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구조적인 차이와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하여 편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계층성·공간성을 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II. 부뚜막의 구조 및 성격

부뚜막과 노지의 차별성은 취사를 전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솔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주거지의 한쪽 벽면에 붙여 시설된다는 점이다. 벽면에 붙여 시설된다는 점은 부뚜막의 기원에 관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뚜막은 완전히 벽체에 붙여 설치되어 있어 청동기·철기시대의 노지가 주거지 중앙이나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주거지 가운데 수석리유적과 교성리유적의 주거지에서는 노지가

111) 衫井 建, 1998, 『朝鮮半島における竈の特質および日本列島との相互關係』, 『靑丘學術會集』 12.

112) 본고에서 사용하는 타날문토기의 개념은 초기철기시대에 나타나는 승석문 또는 격자문이 타날 시문되고 물레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적갈색과 회청색의 토기를 총칭한다. 또한 타날문토기와 공반 출토되는 중도식토기는 경질무문토기, 풍납동식토기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경질무문토기라 칭할 경우 시기 및 지역을 달리하고 있는 원형 및 삼각형점토대토기와의 구분이 어렵고 풍납동식토기 역시 기준에 사용되던 중도식토기에 비해 근래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도식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타날문토기는 종래의 무문토기와는 구별된 전형적인 중도식토기의 전통을 갖으면서 타날문토기의 대표적 성형기법인 때리기 기법을 사용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벽면에 인접하여 시설되어 있어 이전 주거지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기원을 요령지방에서 찾기도 하는데 遼寧省 沈陽市 新民縣公主屯鄉 后山遺蹟의 장방형의 F1주거지에서는 서쪽벽면에 붙여 점토로 시설한 부뚜막시설이 위치하여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뚜막시설과 매우 유사하다.

부뚜막시설의 세부구조는 아궁이와 연소부, 솔걸이부, 솔받침, 연도부, 연통부(배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조재료는 점토와 판석을 혼축하거나 점토만을 사용하여 축조한다. 다른 축조방법으로는 판석으로 기초를 만든 후 점토로 보강하기도 한다. 부재로는 냇돌을 사용하기도 하며, 점토에는 짚풀 등의 유기물을 보강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뚜막의 축조재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따라 쉽게 구해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부뚜막시설의 사회경제적 의의는 부뚜막시설의 등장과 취사용기의 발달로 당시 주거문화에 있어 큰 혁명으로 진일보한 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요소이다. 부뚜막에 상시적으로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취사용 토기의 존재는 음식물 조리법에 있어 진일보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식생활과 조리문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¹³⁾

13) 미사리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장란형토기의 동체부에 점토와 초목흔이 부착되어 있어 장동류의 토기 가운데 일부는 부뚜막의 솔걸이에 고정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루는 구조적으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시루를 부뚜막 고정용의 장란형토기와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시루 바닥에 뚫린 구멍을 막는 데는 솔잎 등 유기물 또는 무명포 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三國志』魏書東夷傳에 “知蠶桑, 作綿布”라는 기록을 통하여 이미 직조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건수, 1997, 『주거지출토 토기의 기능에 관한 시론』, 『호남고고학』 5; 李炯周, 2001, 『韓國古代 부뚜막施設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韓李鉉, 2007, 『華城 鄉南遺蹟 出土 土器의 定量分析과 考古科學的 解釋』,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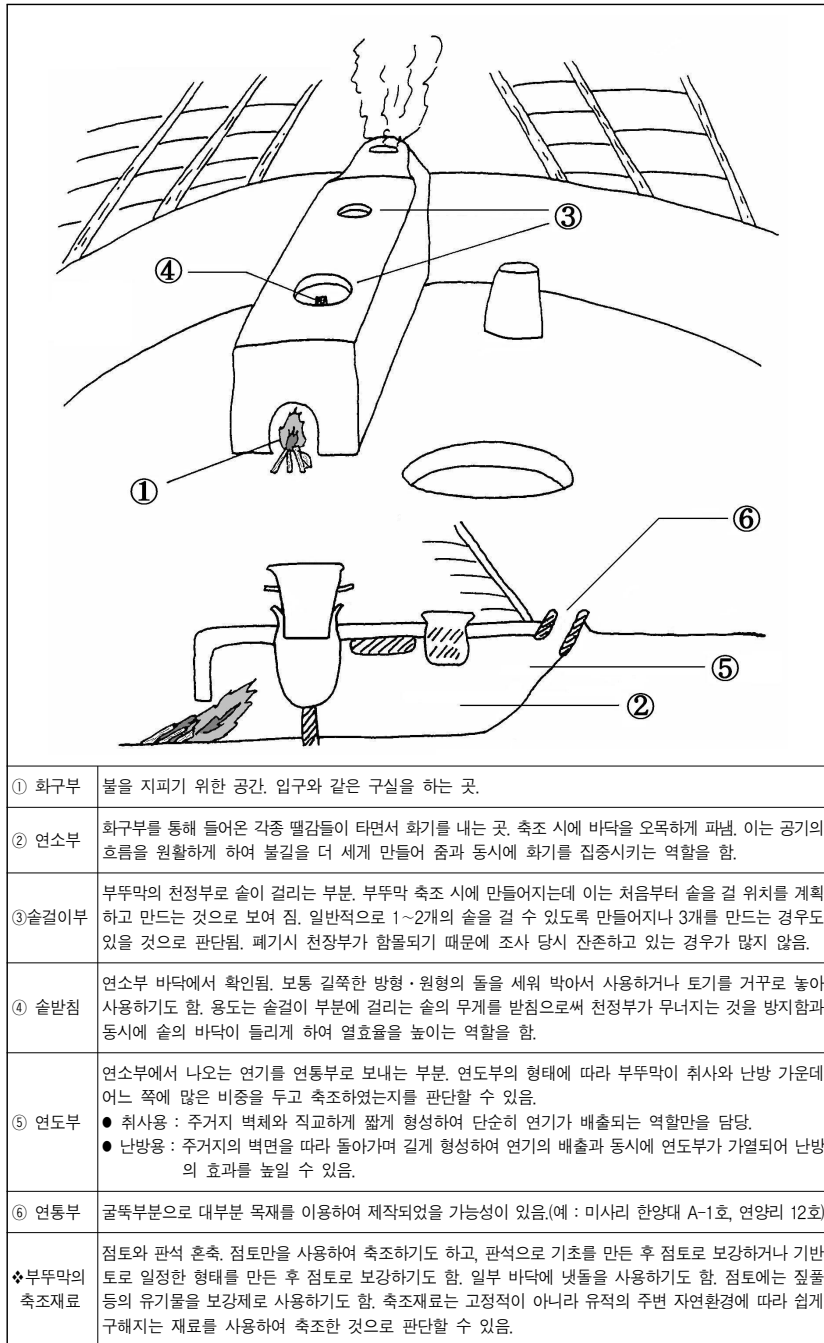


그림 1. 부뚜막의 구조 및 세부 명칭

Ⅲ. 유적의 검토

주거지의 분류는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타)원형과 (장)방형, 말각방형, 뿔자형과 凸자형, 그리고 6각형 주거지의 6형식으로 분류하였다.¹⁴⁾ 다음으로 출입구시설과 노지, 부뚜막시설의 유무를 통해 細分類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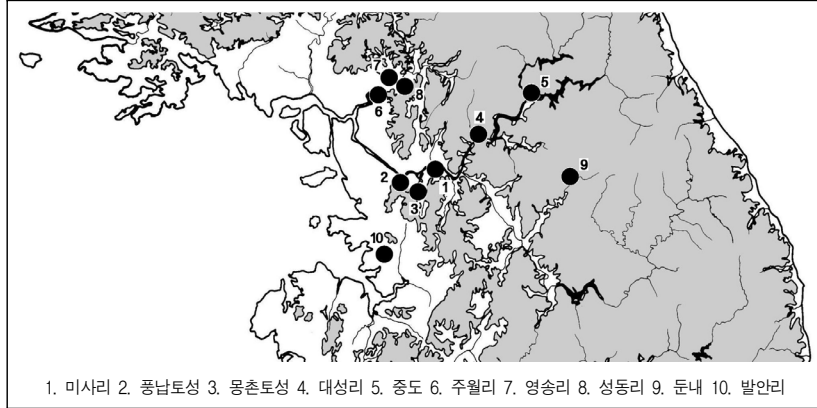


그림 2. 유적의 분포

1. 하남 미사리유적¹⁵⁾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석기문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미사리유적은 조사대상지역이 한강을 따라 동서로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간에 200m의 간격을 두고 서쪽(한강 하류)을 A지구, 동쪽(한강 상류)을 B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철기시대 이후의 주거지는 A지구 30기, B지구 11기 등 모두 41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부뚜막이 확인된 주거지는 A지구 7기, B지구 10기로 B지구의 경우 1기의 주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지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뿔자형, 凸자형, 방형, 원형, 말각방형 등 다양한 형식이 조사되었다. 뿔자형 주거지는 한A-1호만이 보고되었으나 한A-13호와 송A-7호도 뿔자형 주거지와 내부구조와 평면형태에서 유사점이 관찰된다. 뿔자형 주거지는 출입구

¹⁴⁾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6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 형식의 약기호는 다음과 같다.

(타)원형: ○, (장)방형: □, 말각방형: ⊙, 뿔자형: 뿔, 凸자형: 凸, 6각형: ◻

¹⁵⁾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I · II · III · IV · V.

시설을 제외한 부분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고 있고 노지와 부뚜막의 구조를 모두 설치하고 있다.¹⁶⁾

출토유물도 A지구는 중도식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가 3기(한A-12, 송A-7, 고A-020) 있으나 이 가운데 한A-12호는 한A-1호의 부속시설일 가능성이 많고, 송A-7호는 보존결정에 의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도식토기만이 출토된 주거지는 고A-020호가 유일하다. 타날문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5기(고A-013, 016, 032, 033, 035)가 있다. 이 가운데 032호와 033호 주거지 내부출토 토기가 상당수 접합복원이 되고 있고¹⁷⁾, 032호 내부에서는 많은 수의 토제어망추(28개)가 출토되고 있어 033호의 부속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9. B지구에서는 대부분 타날문토기만이 출토되었다.

2. 풍납토성¹⁸⁾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변 층적대지상에 방형계의 토성이다. 현재 보고된 조사지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현대아파트주택 및 1지구 재건축 부지로 유적은 ‘가’ 지구와 ‘나’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가’ 지구에서는 11기, ‘나’ 지구에서는 8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6각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다.

3. 몽촌토성¹⁹⁾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릉지를 이용하여 토성을 축조하고 있다. 몽촌토성은 발굴 당시 및 조사 후 한성기 백제의 도성 내지는 왕성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최근 풍납토성 발굴조사 이후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다.

주거지는 모두 4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지가 중복 및 삭평되어 부뚜막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뚜막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평면형태는 방형 1기와 육각형 3기이며, 육각형 주거지에서는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16)呂자형 주거지는 출입구 시설이 생활공간보다 바닥면의 높이가 높은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삭평 정도에 따라 발굴조사 시 呂자형 주거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17)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V, 135쪽.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 I.

19)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I.

4. 춘천 중도 유적²⁰⁾

북한강 본류의 하안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며, 1980년과 1981년에 각 1기씩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에는 부뚜막시설이 있으며 1980년 조사 주거지에는 부석식 노지도 설치되어 있다. 출토 토기는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으며 1980년 조사 주거지에서는 철축과 미사리 고A-010호와 군곡리 패총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유리옥 용범이 출토되었다 **그림 8**.

5. 횡성 둔내 유적²¹⁾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남한강 상류인 주천강변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지구에서는 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나 2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조사만 이루어졌다. 2호 주거지는呂자형으로 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6. 파주 주월리 유적²²⁾

임진강 남편에 인접하여 있으며 모두 6기의 주거지와 2기의 부뚜막이 조사되었다. 유구의 대부분이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삭평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 부뚜막이 시설되어 있으며,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다. 또한 한2호에서는 고구려계 토기인 광구장경사이호와 광구장경양이호가 출토되고 있어 이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7. 포천 영송리 유적²³⁾

임진강 상류 영평천변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모두 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나 대부분이 교란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20) 국립중앙박물관, 1980, 『중도』 진전보고 I.

21)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횡성 둔내주거지』.

22)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주월리유적』.

23)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 『영송리 선사유적』.

8. 포천 성동리유적²⁴⁾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에 위치하며 영편천 유역의 지표조사 과정에 서 확인된 유적이다. 모두 9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방형과 말각방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다. 출토 토기는 대부분이 타날문토기이나 4호와 6호에서 소량의 중도식토기가 출토되었다. 부뚜막시설은 2·3·9호에 설치되어 있으나 2호 주거지의 경우 부뚜막의 장축이 벽에 연접해 있어 시원적 온돌시설로 판단된다.²⁵⁾ 주거지의 성격에 대해 보고자는 원삼국(6호), 백제(1·2·4·7·8·9호), 신라(3·5호) 주거지로 각각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가평 대성리 유적²⁶⁾과 화성 발안리 유적²⁷⁾ 등에서 부뚜막시설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IV. 연대문제 및 유구의 성격

1. 미사리 유적의 검토

이홍중은 중도식 주거형태와 타날문토기 주거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 중도식 주거형태는 방형(중앙부 노지, 순수 중도식토기만 출토)→방형(부뚜막시설, 타날문토기 공반)→凸자형, 뒹자형으로 변천을 상정하고,凸자형을 한강유역형, 뒹자형을 동해안·내륙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타날문토기 주거형태는 (타)원형→6각형의 순으로 선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최종택은凸·뒹자형 주거지의 연대를 A.D. 1~2C로 편년하고 백제유적으로 구분한 주거지는 제1기 3C 중엽, 제2기 4C 중엽, 제3기 4C 중엽~5C로 편년하고 있다.²⁸⁾

24) 경기도박물관, 1999,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25) 이와 유사한 시설은 한강유역의 미사리 한A-1호와 구성동, 오정동, 서둔동, 정지리 유적 등과 남해안 지역의 사천 늑도 유적에서도 확인되며,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창원 외동 유적에서도 실견하였다.

2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畿甸考古』 제5호.

27)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旗安里 製鐵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14.

28) 최종택, 1994, 『미사리유적의 주거양상과 변천』, 『마을의 고고학』; 2002, 『미사리 백제 취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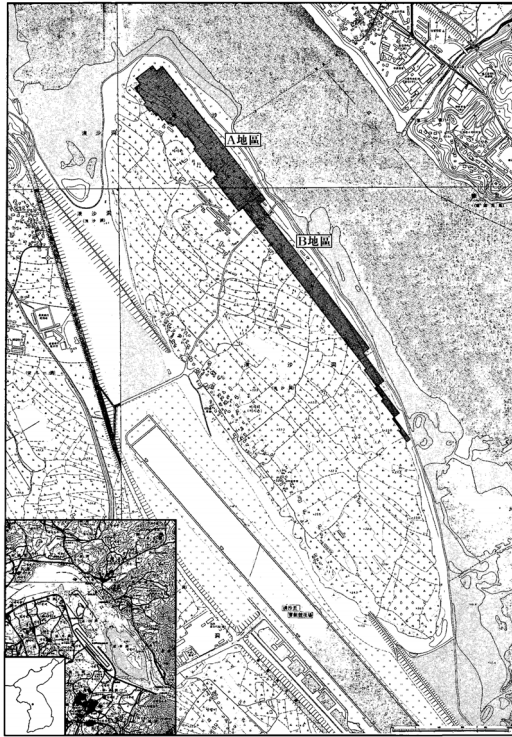


그림 3. 미사리유적 위치도

박순발은 한강유역은 세형동검기가 끝나고 A.D. 1C까지 문화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었고 A.D. 1~2C가 되어서야 비로써 이 지역에 철기문화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⁹⁾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한성백제를 몽촌 I기(3C 말~4C 초), 몽촌II기(4C 중엽)로 구분하고 몽촌II기에 이르러서야 초기 백제의 중심적인, 즉 백제의 성립이 이루어졌다는 편년안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³⁰⁾

임영진은 미사리유적을 3기로 구분하고 1기는 중도 식토기 단계(2세기대), 2기는

승석문이 타날된 심발형토기와 장관형토기가 나타나는 단계(2세기 초~3세기 중엽), 3기는 전형적인 백제토기가 우위를 점하는 단계(3세기 후반)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미사리유적을 편년분석하며 연대에는 차이가 있지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계설정의 기준은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의 출토 빈도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구조와 성격, 『호서고고학』 6·7.

²⁹⁾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³⁰⁾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I. 이러한 편년안의 기준은 몽촌토성 출토 직구단경호와 법천리 2호분 출토 직구단경호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청자양형기의 연대를 감안하여 A.D. 4세기 전반~중엽으로 추정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천리유적은 한 유적 안에 중복되지 않고 밀집되어 있는 6호 토광묘(3세기 말~4세기 초)→4호 황구식 석실분(4세기 말~5세기 초)→1·3호 황혈식 석실분(5세기 전·중반)→7호 황구식 석곽묘(6세기 중엽 이후~7세기 초)→8호 황구식 석곽묘로 편년하고 있어 각 단계를 약 100년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편년하는 등 편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자양형기는 대체로 322년 이전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난영, 1998, 『백제 지역 출토 중국 도자 연구』, 『백제연구』 28; 국립중앙박물관, 2000, 『법천리』 I.

하지만 주거지의 배치상태에 서 각 단계의 주거지는 A지구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적의 서쪽(한강 하류)에는呂자형주거지가 배치되어 있고 한A-1호는 한A-4호, 한A-13호는 한A-12호, 송A-7호는 송A-21호 토광이라는 별도의 부속시설을 출입구 방향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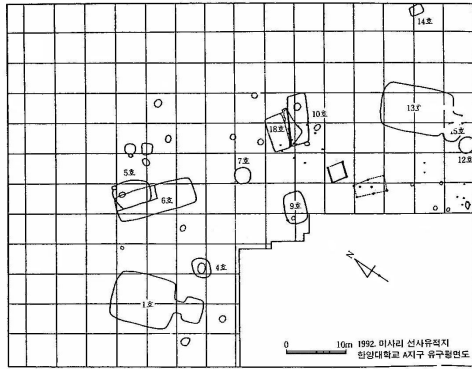


그림 4. 미사리 한양대 A지구 유구 배치도

다음으로 凸자형주거지는 고려대 A지구에서만 나타나며, 呂자형과 凸자형 주거지 모두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를 공반하고 있다. 특히 고A-014호에서는 중도식토기와 함께 완형의 마연대호도 출토되었다(그림 8). 또한 고A-009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방제경과 관옥, 유리옥용범 등이 출토되고 있다(그림 10).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는 서A-4호와 고88-1호를 경계로 동쪽(한강 상류)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는 모두 10기로 별도의 출입구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³¹⁾ 출토 토기는 A지구에서 고A-020(중도식토기),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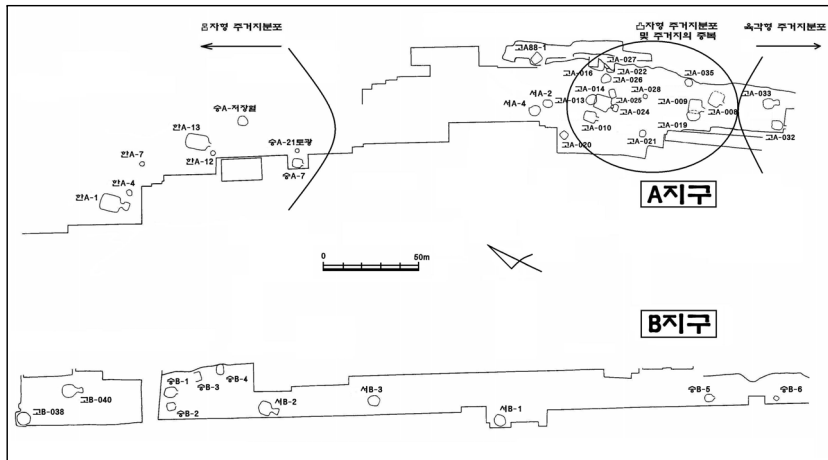


그림 5. 미사리유적 유구 배치도

31) 서A-2·4호에 출입구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도면 확인결과 출입구 시설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이 두 유구의 부뚜막시설은 매우 발달된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발굴조사 미숙으로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A-019, 026, 035호(타날문토기)를 제외하고³²⁾ 모두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하고 있다. 철기도 타날문토기만이 출토하는 주거지에서만 조사되고 있다.

출입구부 6각형의 주거지는 고A-033호를 경계로 동쪽(한강 상류)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A-03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뚜막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고B-040호는 2기의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주거지에서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고B-040호에서는 벼루와 모루가 출토되고 있다. 주거지의 출토유물 및 주거지의 규모가 대형인 점으로 보아 이러한 주거지는 비교적 높은 계층의 주거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사리유적의 전체유구 배치상태를 살펴보면 서쪽(한강 하류)으로는呂자형 주거지, 중앙에는 凸자형 주거지, 동쪽(한강 상류)지역은 출입구부 6각형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형 및 방형의 주거지는 흔재하고 있다.

출토 토기 역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떠나 서쪽과 중앙은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가며 타날문토기만이 출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포와 토기의 출토상황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출토 토기가 시간적인 속성만을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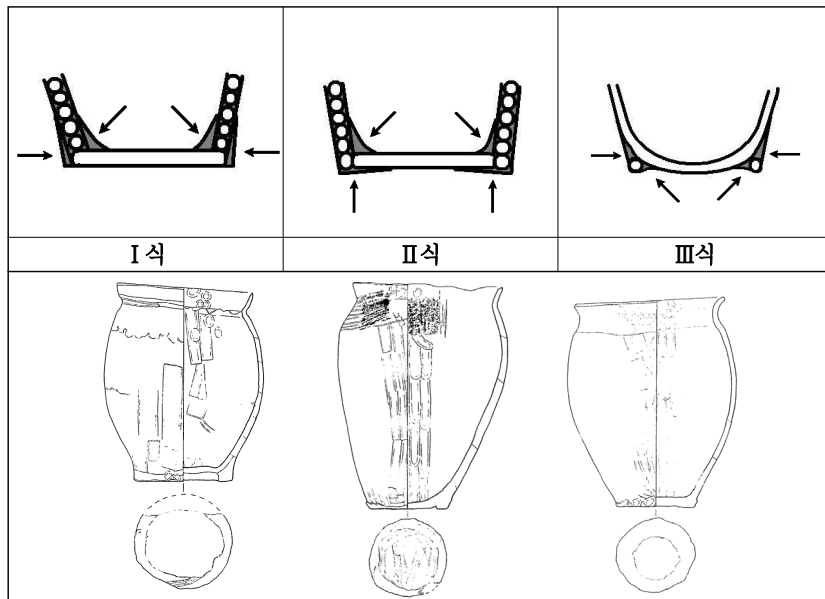


그림 6. 토기 저부 제작기법과 풍납토성 출토 중도식토기

³²⁾ 주거지로 보고되었으나 창고와 토광시설로 판단하는 유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도식토기의 제작기법은 이전의 무문토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단계의 무문토기 저부 제작방법은 점토판을 만들고 점토판 외부에서부터 윤적법이나 권상법을 통하여 쌓아 올라가는 방법(I식)과 점토판 위에서부터 성형해 올라가는 방법(II식)이 사용되고 있다.³³⁾ 그러나 환저에 원환을 접합하여 토기를 성형하는 기법(III식)이 일부 중도식토기에서 관찰된다(그림 6.³⁴⁾

2. 연대문제

다음으로 문헌기록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대를 추정하여보도록 하겠다.

한강유역은 백제의 개로왕 21년(475)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 문주왕이 겨울 10월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하였다.³⁵⁾ 그 후 551년 백제와 신라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몰려날 때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시 신라의 진흥왕은 553년에 백제를 물리치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 이후 한강유역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백제의 도읍이었던 한성지역, 즉 한강유역은 백제(십제~475), 고구려(475~551), 백제(551~553), 신라(553 이후)가 차례로 장악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되고 문주왕이 천도하여 왕성을 세운 곳이 웅진, 즉 현재의 공주이다. 백제가 천도한 웅진성은 현재 공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³⁶⁾ 공산성은 대형의 건물지와 저장시설, 그리고 연못지만이 조사되었고, 한강유역과 같은 6각형의 수혈주거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안악 3호분(동수묘)와 덕흥리 벽화고분의 연대가 350년 전후로 편년이 모아지고 있다.³⁷⁾ 이들 무덤 내부에는 기둥과 공포가 설치되거나 벽화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고분에 설치된 구조물과 공포양식은 당시에 이미 상당한 건축기술의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가옥 건축의 기술력이 벽화고분의 축조 시기 이전에 발달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중요 건축물은 지상구조물화, 즉 지상가옥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33) 大山 柏, 1985, 『土器製作基礎的研究』, 第一書房; 최성락, 1993,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이홍중,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34) 이러한 제작기법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저부에서도 일부 실견하였으나 아직 많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35) 『三國史記』百濟本紀 第3 蓋鹵王 21年條; 『三國史記』百濟本紀 第4 文周王 1年條.

36) 이남석, 2002, 『웅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

37)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3판, 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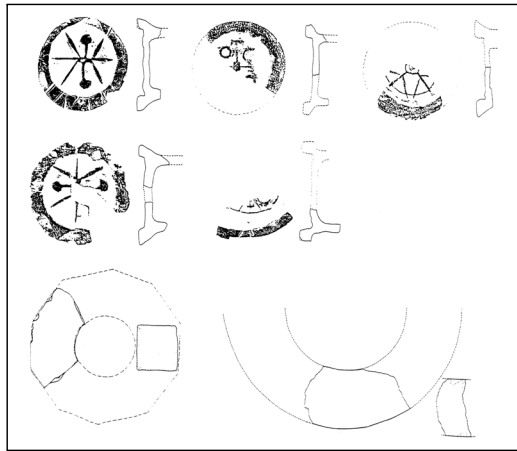


그림 7. 풍납토성 출토 기와·토제초석

풍납토성에서 조사된 많은 수의 주거지(7기)에서 암수기와와 수막새기와가 출토되었고, 가-17 수혈에서 10각 토제 초석과 가-20호 수혈에서 원형의 토제 초석이 출토된 사실은 한강유역에서도 지상구조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그러나 미사리유적에서 풍납토성과 같은 고급의 유

물이 출토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예로 든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강유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수혈 주거지의 연대는 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수혈주거지에서 지상가옥으로 변화한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경과하고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문헌기록을 통해 본 주거지의 성격

다음으로는 평면형태에 따라 분포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주거지의 성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중도식토기를 사용하는 집단의 성격에 대해 이흥종은 말갈³⁸⁾, 박순발은 예족³⁹⁾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한 문헌사료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온조왕조⁴⁰⁾에

- A. 二年春正月 王謂群臣曰 靺鞨連我北境 其人勇而多詐 宜繕兵積穀 爲拒守之計。
- B. 三年秋九月 靺鞨侵北境 王帥勁兵 急擊大敗之 賊生還者十一二。
- C. 八年春二月 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 王閉城門不出 …… 秋七月 築馬

³⁸⁾ 이흥종,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³⁹⁾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⁴⁰⁾ 『三國史記』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條.

首城 豎瓶山柵。

- D. 十年秋九月 王出獵獲神鹿 以送馬韓 冬十月 靺鞨寇北境 王遣兵二百拒戰於昆彌川上 我軍敗績 依青木山自保。
- E. 十一年夏四月 樂浪使靺鞨襲破瓶山柵 殺掠一百餘人。
- F. 十三年 …… 夏五月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侵軼疆境 少有寧日 …… 。
八月 遣使馬韓告遷都 遂畫定疆場 …… 九月 立城闕。
- G. 十四年春正月 遷都。
- H. 十八年冬十月 靺鞨掩至 王帥兵 逆戰於七重河 虜獲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
- I. 二十四年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遂壞其柵。
- J. 二十六年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儻爲他所并 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固守不下。
- K. 二十七年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 A. 2년(B.C. 18) 정월에 왕이 군신에게 이르기를 “말갈은 우리 북경에 연결하여 있고, 인성이 용감하고 다사하니 마땅히 병기를 수선하고 양곡을 저축하여 방수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였다.
- B. 3년(B.C. 19) 9월에靺鞨이 북쪽 경계를 침범하므로, 왕이 강병을 거느리고 급히 쳐서 이를 대파하였는데 적의 생환한자가 열에 한둘이었다.
- C. 8년(B.C. 12) 2월에 말갈적 3,000명이 내습하여 위례성을 포위하므로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 D. 10년(B.C. 10) 9월에 왕이 사냥을 나가서 神鹿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10월에는 말갈이 북경을 침범하므로 왕이 군사 200명을 보내서 끈미친 위에서 거전 하도록 하다가 아군이 패하고 청목산에 의거하여 스스로 보전하였다.
- E. 11년(B.C. 9) 4월에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쳐부수고 100여 명을 죽이고 혹은 사로잡았다.
- F. 13년(B.C. 7)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동에는 낙랑이 있고, 북에는 말갈이 있어 영토를 침노하여 오히려 편안한 날이 적다.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를 고하고 강역을 확정하였다. 9월에는 성궐을 세웠다.
- G. 14년(B.C. 6) 정월에 천도하였다.
- H. 18년(B.C. 2) 10월에 말갈이 엄습해 오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아 싸워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모두 갱살하였다.

- I. 24년(A.D. 5) 7월에 왕이 응천책을 세우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나무라기를, “왕이 처음 하수를 건너 용족할 곳이 없자, 내가 동북 100리의 땅을 떼어 안겨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두터웠다 할 것이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나라가 완전하고, 인민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 하고 크게 성지를 만들고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의리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왕이 부끄러이 여겨 드디어 책을 철했다.
- J. 26년(A.D. 7) 7월에 왕이 말하기를 “마한은 점점 쇠약해지고 상하의 인심이 이반하니 능히 오래 지탱하지 못할 형세이다. 만일 남에게 빼앗긴다면 순망치한의 격이 될 것이니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마한을) 취하여 후환을 면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10월에 왕이 군사를 내어 길으로 사냥을 한다하고 몰래 마한을 쳐서 드디어 그 국읍을 병합하였으나 다만 원산과 금현의 두 성은 고수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 K. 27년(A.D. 8) 4월에 두 성이 항복하므로, 그 성민을 한산 북쪽으로 옮겼다. 마한은 드디어 멸망하였다.

위의 기사 가운데 말갈과의 관련기사는 천도 이전 A·B·C·D·E가 있으며, 천도 이후에도 H가 있다. 반면에 마한⁴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를 살펴보면 기사 D에서 神鹿을 잡아 마한에 보내고 있으며, 기사 F에서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를 고하고 강역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기사 H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말갈과의 전투에서 사로잡은 추장을 마한에 보내고 있어 아직까지 마한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한과의 갈등은 기사 I에 처음으로 보이며 마한에서 백제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년 후에는 결국 백제가 마한을 복속시켜 나아가고, A.D. 8년에는 백제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면 마한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진서』 동이열전 마한조의 기사를 보면,

마한은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성곽이 없다. 모두 56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큰 나라는 1만호, 작은 나라는 수천호로서, 각각 거수가 있다....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어 거처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무덤 같으며 출입문은 위쪽으로 나온다....

41) 본고에서 사용하는 마한은 한강유역의 마한세력에 한정한다.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은 고고 자료를 통하여 5C 3/4분기에서 6C 1/4분기까지는 존속했던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99,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출판부, 1998, 『마한사연구』; 최성락 편저, 1999,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 학연문화사; 역사문화학회·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

고 기록하고 있다.⁴²⁾ 또한 276년부터 291년에 걸쳐 거의 매년 遣使가 이루어지는데 미사리 한A-1호에서 출토되고 있는 방제경은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서진과의 교섭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도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이를 통해呂자형 주거지의 주체세력이 마한주민이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마한이 백제에 의해 복속된 이후에도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백제주민과 공간의 일정부분을 공유하면 살아가고 다시 얼마만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차츰 그들의 문화가 융화되어 나아가며 그러한 모습은 한강유역, 특히 미사리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백제의 중심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이러한 영향을 늦게 받게 되어 보다 느린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한강유적 부뚜막시설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을 검토를 통하여 시간적·공간적 위치를 검토하였다.

부뚜막시설 주거지는 呂자형, 凸자형, 圓형, 방형, 말각방형, 6각형 등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출토 토기는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출토 유물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시간적인 선후관계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 유형별로 유적내에서의 입지의 차별화가 관찰되며 이를 통해 집단간 또는 계층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강유역, 특히 하남 미사리유적의 부뚜막시설 주거지의 분류를 통하여 당시에 문화를 복원을 시도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고자료를 분류하고 그것을 종적인 개념, 즉 시간적인 차이로만 이해하기보다, 문화적·계층적인 횡적 개념으로 분석을 시도하려 노력하였다.

42) 『晉書』卷九十七 列傳 第六十七 四夷 馬韓條, “馬韓居山海之間, 無城郭, 凡有小國五十六所, 大者萬戶, 小者數千家, 各有渠帥... 居處作土室, 形如冢, 其戶向上, 舉家共在其中....”



그림 8.凸자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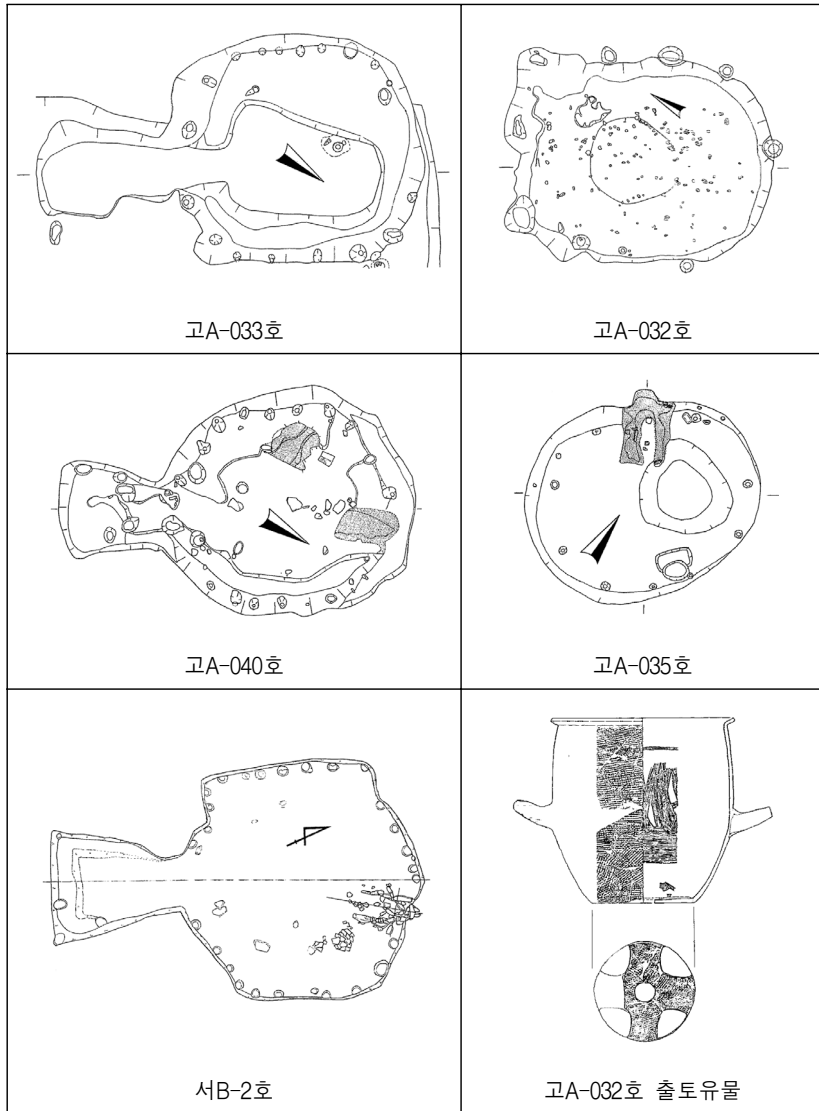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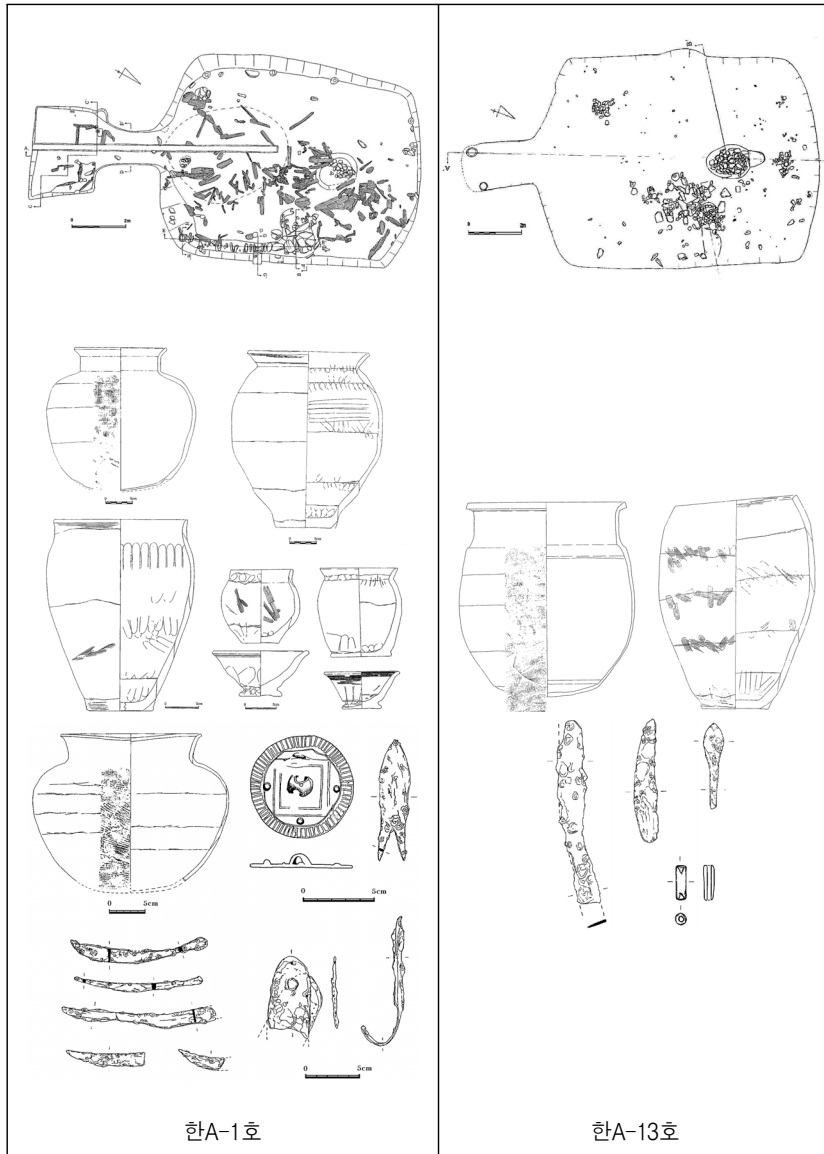


그림 9. 6각형·원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한A-1호

한A-13호

그림 10. 몸자형 주거지와 출토유물

표 1. 미사리유적 주거지제원 및 출토유물 일람표 I

유구번호	평면 형태	출입 시설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노 지	부 두 막	출토유물					비고
							중도식 토기	타날문 토기	철기	석기	기타	
한A-1	㉠	●	10	7.3	●	●	●(2)	축, 도자	어망추	방제경		
한A-4	㉠		3.7	3.1		●	●				13호부속토광?	
한A-7	○		3.5			●	●		어망추, 석봉		토광?	
한A-12	○		2.7			●					1호부속토광	
한A-13	㉠(㉠)	●	13.4	8.2	●	?	●	축, 도자	어망추, 석착	관옥		
송A-7	㉠(㉠)		6.8	4.5			●	도자			조사미완	
송A-저장혈	不		4.9	4.34			●	도자				
송A-21토광	○		2.36	2.14			●	●	거치문			
서A-2	○		5.0			●	●					
서A-4	○		5.0			●	●		부	관옥		
고A-88-1	□	●	5.2	4.95	●	●	●多	●2				
고A-003	□		5.19								절반조사	
고A-008	㉠	●	6.9	6.84			●	●	11			
고A-009	㉠	●	7.2	7.2			●少	●多		검		
고A-010	㉠	●	6.3	5.46	●	●	●	구연1	1	유리옥용범		
고A-013	○㉠		5.1			?	●		방추차	단각유개고배	중복014	
고A-014	㉠	●	9.4	7.8	?		●	마연대호	1		중복013,024	
고A-016	○		7.5	6.6							교란	
고A-019	○		6.3	6.0		●	●		27		중복009	
고A-020	□		4.2	4.11	●		●					
고A-021	□		3.84	3.75						지석		
고A-022	□		4.35								교란	
고A-024	不		4.05	3.45							중복014	
고A-025	□		4.26	3.3						검?		
고A-026	○		5.76	4.35		●	●		2	축		
고A-027											대부분교란	
고A-028	○		3.0					片			토광(?)	
고A-032	○		6.09	4.83			●			토제어망추	창고(?)	
고A-033	○	●	6.0	5.25			●		2	방추차, 어망추, 축	중복034(靑)	
고A-035	○		5.4	4.56		●	●		2		토제어망추	
고B-038	○		6.18	5.1		●			4			
고B-040	○	●	7.92	7.0		●2			9	지석	벼루, 모루	
송B-1	○	계단	6.5	4.9		●	●少	●	축, 도자			
송B-2	㉠	●	5.7	4.1		●	●	삼족기				
송B-3	□		4.65	3.62		?	●				일부교란	
송B-4	㉠		5.2	3.9		●	●					
송B-5	㉠	●	5.2	4.2		●	●	축, 도자	부			
송B-6	㉠		1.8	1.7		●	●					
서B-1	○		6.3			●	●	삼족기				
서B-2	○	●	5.0	3.7		●	●	삼족기	주조철부2	검, 도자		
서B-3	○		6.3			●	●	瓦				

(※ 한: 한양대, 송: 송실대, 서: 서울대, 고: 고려대, 단위: m)

표 2. 미사리유적 주거지제원 및 출토유물 일람표 II

유구번호	평면 형태	출입 시설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노 지	부 뚜 막	출토유물					비고
							중도식 토기	타날문 토기	철기	석기	기타	
고A-032	○		6.09	4.83			●			토제어망추	창고(?)	
고A-033	◇	●	6.0	5.25			●	2	방추차, 어망추, 축		중복034(靑)	
고A-035	○		5.4	4.56		●	●	2		토제어망추		
고B-038	○		6.18	5.1		●		4				
고B-040	◇	●	7.92	7.0		●2		9	지석	벼루, 모루		
송B-1	◇	계단	6.5	4.9		●	●少	●	축, 도자			
송B-2	⊕	●	5.7	4.1		●	●삼족기					
송B-3	□		4.65	3.62		?	●				일부교란	
송B-4	⊕		5.2	3.9		●	●					
송B-5	⊕	●	5.2	4.2		●	●	축, 도자	부			
송B-6	⊕		1.8	1.7		●	●					
서B-1	○		6.3			●	●삼족기					
서B-2	◇	●	5.0	3.7		●	●삼족기	주조철부2 검, 도자				
서B-3	○		6.3			●	●瓦					

표 3. 유적별 주거지제원 및 출토유물 일람표 I

유적명	유구 번호	평면 형태	출입 시설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노 지	부 뚜 막	출토유물					비고	
								중도식 토기	타날문 토기	철기	석기	기타		
풍납토성	가-1	○	●	9.1	6.5			개	●	●	지석	토제어망추	암수기와	
	가-2	○	●	9.5	7.1		●		●	도자, 착	지석	토제어망추	암수기와	
	가-3	○	●	9.5	7.5	?	●		●				암기와	
	가-4	○	교란	4.1	3.2				●				토제어망추	창고?
	가-5	○	●	10.7	7.3		● 노지?		●					교란, 암기와 수막새2
	가-6	○		7.6	5.9									삭평
	가-7	○	●	7.9	6.7		●		●		석도			암수기와
	가-8	○	●?	8.0	6.2									삭평
	가-9	○	●	8.0	6.3		● □		●	대각편				삭평, 중복10
	가-10			6.7	6.0									중복, 삭평
	가-11	丕		6.7	6.7			●	●	교배		석도	토제어망추	
	나-1	○	●	6.6	6.6				●					중복5
	나-2	○	○	11	7.8					주조철부		전돌		암기와
	나-3	○		?	6.9				●			골각기		일부잔존
	나-4	○	추정	8.4	6.5				●					교란, 삭평
	나-5	○	추정	6.3	5.0				●					삭평
나-6	○	추정	6.0	5.1				개	●		지석		삭평	
나-7			10	9					●	기대			교란, 수막새3 암수기와 多	
나-8			?	3.4			●	●	●					
몽촌토성	88-1	□		약 5	약 3		?		●					
	88-2	○	●	약 10.8	약 7.3		?		고배, 삼족기	모, 장도 등	지석	토제어망추	1파괴, 고구려	
	88-3	○	●						고배, 삼족기	부			4파괴, 고구려	
	88-4	○	●				?		삼족기 기대					
중도	80	⊙		5.4	5.0	●	●	●	●	축		유리옥용범		
	81-1	□		4.7	4.2		●	●	●		석도			
주월리	경96-7	凸	●	17.5	10.85		●		●	검, 꺾쇠				
	경96-8						●		●				삭평	
	경97-4	凸	●	7.24			●		●					
	한1		●				●	●	●	축, 도자, 꺾쇠	방추 차, 지석		삭평	
	한2	□		6.0	5.3		●?	●	●	검, 도자			삭평, 고구려토기	
	한3	凸	●				●		●	단조철부			삭평	
	부뚜막1							●	●					
	부뚜막2								●	축4				

표 4. 유적별 주거지제원 및 출토유물 일람표 II

유적명	유구 번호	평면 형태	출입 시설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노 지	부 뚜 막	출토유물					비고
								중도식 토기	타날문 토기	철기	석기	기타	
둔내	나-1					●		●	●	도자		수정옥2	교란
	나-2	呂	●	10.6(7.6)	6.4	●		●	●			타날방추차	
	나-3					?		●	●				교란
	나-4					●		●	●		착		교란
	나-5					●		●					
영송리	1						●						교란
	2		●					●					교란
	3		●			●		●					교란
	4							●					교란
	5	凸(呂)	●	8.8	6			●	片				
성동리	1	○?		5.4(?)	3.9(?)				●				
	2	○				●	은돌		●	축	지석		
	3	□		3.2	3	●		●		축			신라
	4	○		4.9(?)	3.6			●	●	도자, 주조부		토제구슬	
	5							●	유개고배	검, 축			교란, 신라
	6	□						●	●				중복파괴7
	7	○		3.9	3.4	?	?	●	●				6호를 파괴
	8							●					교란
	9	○		5.5	3.7		●		●	도자, 철괴			
동덕리	1	呂	●	13	7.4			●	●		일단 경축	착, 지석	
가평리	2	呂	●	10.5	5.5	●		●	●	검, 도자, 축			

참고문헌

논문

- 김건수, 1997, 『주거지 출토 토기의 기능에 관한 시론』, 『호남고고학』 5.
-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 이난영, 1998, 『백제 지역 출토 중국 도자 연구』, 『백제연구』 28.
- 李炯周, 2001, 『韓國 古代 부뚜막施設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弘鍾, 1993, 1985, 『부뚜막施設의 登場과 地域相』, 『嶺南考古學』 12, 嶺南考古學會.
- 張慶浩, 1985, 『우리나라 煖房施設인 溫突 形成에 對한 研究』, 『考古美術』 165, 韓國美術史學會.
- 정찬영, 1966,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고고민속』 66-4.
- 최종택, 1994, 『미사리유적의 주거양상과 변천』, 『마을의 고고학』.
- _____, 2002, 『미사리 백제 취락의 구조와 성격』, 『호서고고학』 6·7.

- 韓李鉉, 2007, 『華城 鄉南遺蹟 出土 土器의 定量分析과 考古科學的 解釋』,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衫井 建, 1998, 『朝鮮半島における竈の特質および日本列島との相互關係』, 『靑丘學術會集』 12.

단행본

- 김원용, 1986,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 역사문화학회·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
- 이남석, 2002, 『웅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
- 이홍중,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최성락, 1993,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 최성락 편저, 1999,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 학연문화사.
-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99, 『한국의 전방후원분』.
- 충남대학교출판부, 1998, 『마한사연구』.
- 大山 柏, 1985, 『土器製作基礎的研究』, 第一書房.

보고서

-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횡성 둔내 주거지』.
- 경기도박물관, 1999, 『과주 주월리 유적』.
- 경기도박물관, 1999,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 국립중앙박물관, 1980, 『중도』 진전보고 I.
- 국립중앙박물관, 2000, 『법천리』 I.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 I.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畿甸考古』 제5호.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發安里 마을遺蹟·旗安里 製鐵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14.
-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I·II·III·IV·V.
-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I.
-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 『영송리 선사유적』.

Abstract

A study on habitation with fireplace range
in center of the Korea Peninsula
: Focused on Hanam Misa-ri Area

Kim, Jae Ho

The survey found that fireplace range in habitation. There are constructions and inflection method differences between the bare ground and fireplace range. Through the difference you can see various change of culture.

Habitation with fireplace range in center of the Korea Peninsula is studying about structure and regional distinguishing mark, expansion aspect, origin by increasing data. Through comparative study a plane form and structure difference have explained by relation of beginning and end.

A study on the habitation with fireplace range classifies into six categories, base on plane form of changed. Also survey spatial and cultural difference without change of time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assemblages at each habitation.

This could apply difference between possession space and level as well as difference between a plane form and structure changed. By examining literature data you confirmed meaning what habitation changed.

Key words : Fireplace Range, Misa-ri Area, Jungdo-Type Pottery,
Habitation